

모더니즘, 그 역사적 사명 - 뉴욕 현대미술박물관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박태형 / 재미건축가, First Enterprise 대표
by Arthur T. Park

최근 뉴욕 현대미술박물관 확장·개축과 관련하여 21세기를 향한 모더니즘 건축의 방향을 돌이켜보는 전시회가 뉴욕에서 열렸다. 그래서 처음엔 첨단 주택자동화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는 미국의 주택시장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었으나, 이 전시회와 때를 맞춰 본고에서는 미국 건축계의 방향을 일면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해 12월 미서부 로스엔젤레스에 문을 연 게티센터가 완전한 신축건물로서 도심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도시를 바라다보는 산위에 세워져서 도심과 자연을 연결시켜주는 멋이 있었던 반면에 이번 뉴욕 현대미술박물관은 도심자체에 위치한 박물관을 그 부지위에서 전면 확장, 개축하려는 설계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다르다. 21세기에는 새로운 부지를 선정,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보다는 기존의 건축물들을 토대로 확장, 증개축하는 설계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며, 당분간 한국이 직면한 IMF시대에 있어서도 비교적 적은 투자로 얼마든지 증개축을 하여 건축물에 변화를 주므로써 내부의 건축수요를 계속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증개축 설계에 관한 관심은 더욱 늘어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뉴욕의 현대박물관은 전체 예술소장품의 10%만을 전시할 수 있는 기존의 박물관을 10년여에 걸쳐 확장하기 위해 지난해 뉴욕 현대미술박물관의 확장 개축공사 설계 공모전의 최종 당선작품으로 일본인 요시오 타니구치의 설계를 확정하였다. 비록 일본인의 작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아시아인이 선진국의 현대건축물 설계시장에서 얼마든지 자리를 잡고 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는 계기로 상당히 한국의 건축계에서도 눈여겨 볼만한 사건이다. 특히 텃세가 심한 미국의 본바닥인 뉴욕의 최고 박물관이며 70년에 가까운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현대미술박물관의 확장개축설계에 미국 등지의 유명한 건축가들을 제치고 일본인의 작품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에 세계 건축시장을 대상으로 더 폭 넓은 활동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의 건축설계 관련분야 종사자들을 위해 이번의 뉴욕 현대미술박물관 공모전의 참가 작품들을 살펴보는 것만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깊다고 본다.

뉴욕 현대미술박물관은 올해 3월 5일부터 4월 28일까지 최종 심사에서 타니구치와 함께 경합을 벌였던 스위스 건축설계회사인 헤르조그 & 드 모이론사의 작품과 뉴욕 건축가 버나드 추우미의 작품을 '현대 건축의 재고찰'이라는 전시회를 통해 함께 공개하였다. 이 작품전시회에서는 최종심사에 오른 3인의 건축가들이 어떻게 설계 초기단계에 가지고 있었던 추상적인 설계 개념들을 형상화시키면서 이를 최종작품으로 완성시켜 나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뉴욕 현대미술박물관측은 박물관 건축설계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21세기 건축설계의 진로를 조명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 특히 뉴욕 현대미술박물관 자체가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여 현대건축 설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박물관이 단순히 과거의 예술품을 보관하는 1차원적 기능 차원을 넘어서 활발히 예술, 건축의 진취적인 논의와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앞으로의 현대건축의 방향은 고도로 발달된 도시환경속에서 세워지는 신축 건물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건축환경속에서 확장, 증개축을 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여야 하는 부분들의 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현대건축의 재고찰'의 자리를 마련한 뉴욕 현대미술박물관의 의도는 건축가들에게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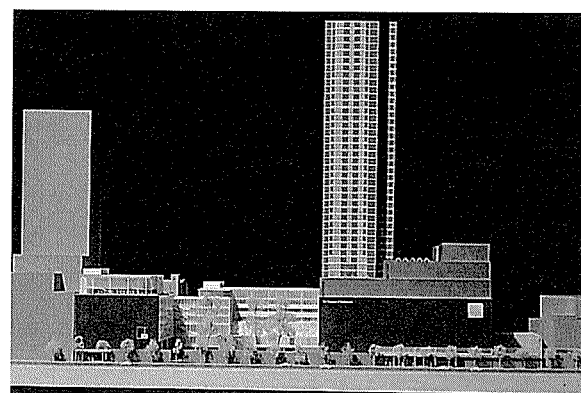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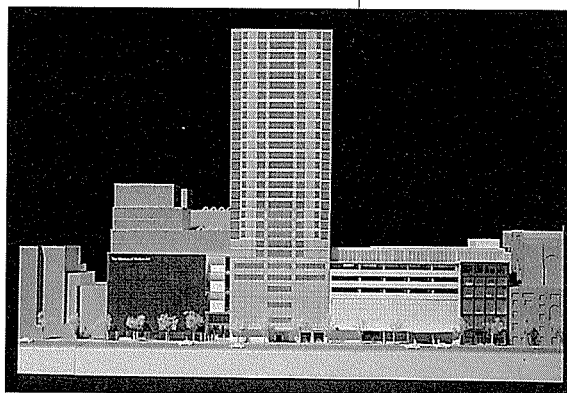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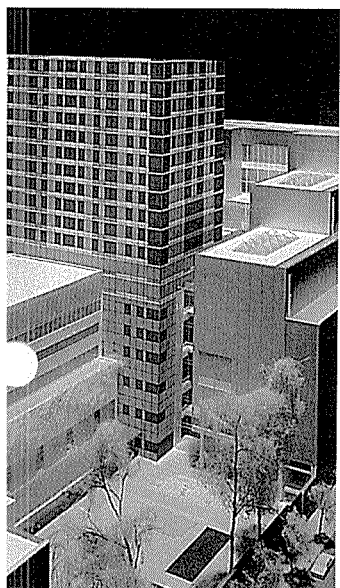
스위스의 건축가 자크 헤르조그와 피에르 드 모이론은 현재 영국 런던의 테이트 화랑의 신축을 설계하고 있으며 요시오 타니구치는 일본에서 이미 여러 박물관들을 설계한 일본이 자랑하는 건축가이다. 1937년생인 타니구치는 게오대학을 1960년에 졸업, 미 하버드대학을 1964년에 졸업한 후에 일본 건축가 칸조 텐지 밑에서 건축설계를 맡아왔다. 그는 동경국립박물관, 토요타박물관, 마루가메 게니치로-이노쿠마 현대미술관, 나가노 박물관 등 일본내에서 독특하고 아름다운 여러 박물관들을 설계하여 일본내에서는 많이 알려진 건축가이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설계공모전에 초대받아 참가하였다. 또한 버나드 추우미는 뉴욕이 자랑하는 콜롬비아 대학의 건축학 대학원의 원장으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다. 이와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요시오 타니구치의 작품이 최종 선택된 이유는 무엇인가?

1996년 11월, 건축가선정위원회가 결성되어 본격적으로 뉴욕 현대미술박물관의 확장공사를 설계할 건축가를 선발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위원회는 전세계의 30개 이상의 건축물들을 참관하였고, 뉴욕 현대미술박물관측은 1996년 10월부터, 전세계의 유명 예술가, 비평가, 건축가, 박물관 소장자들이 참석하여 현대 미술박물관의 미래를 논하는 각종 회의를 연속하여 개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10명의 건축가들이 선정되었고 이들 중에서 다시 3명의 최종 결선자들이 결정된 것이다. 10명의 초청 건축가들중에서 타니구치를 비롯하여 일본인으로 토요 이토가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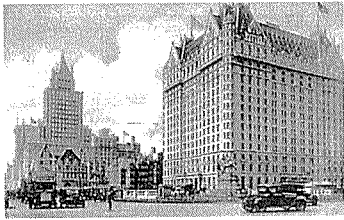
현대미술박물관측은 1939년 뉴욕의 건축가 필립 구드윈과 에드워드 스톤이 설계한 53기에 소재한 박물관 건물과 1953년에 애비 알드리지가 설계한 록펠러재단의 조각 정원, 박물관 타워는 그대로 둔 채로 추가로 25만 스퀘어 피트

에 달하는 추가부지와 기존의 박물관내의 모든 화랑과 행정사무실들을 대상으로 확장·개조공사를 할 수 있게 설계를 요청하였다. 3인의 최종 건축가들은 뉴욕 현대미술박물관의 역사적인 유산을 작품속에서 어떻게 재구성하여 보여줄 수 있는가에 있어서 제각기 다른 각도로 설계에 접근하였다. 타니구치의 작품은 박물관의 전통적 역할을 염두에 두면서 역사성을 본인의 설계에서 더욱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비평가들은 논하고 있다. 타니구치는 은은하면서 우아한 표현을 통하여 모더니즘의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확신이 드러나 보이도록 설계를 하여 완성시에는 박물관의 전체구조가 현대적 디자인의 외관을 갖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만들었다. 특히 여기저기 뜯어붙이기식으로 과거 수차례에 걸친 소규모 확장공사들을 통하여 현대박물관으로서의 이미지가 퇴색되었던 뉴욕박물관으로서 21세기적인 모더니즘양식으로 재단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더욱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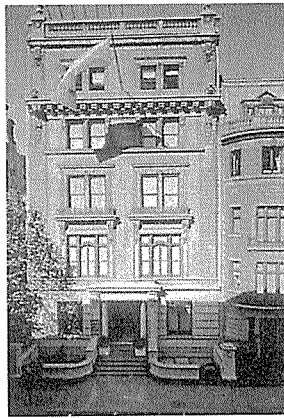
타니구치의 설계에서는 화랑들을 모두 박물관의 북서쪽 코너에 수직으로 재배치시켰다. 또한 화랑 큐레이터 및 담당직원들의 사무실과 교육부 및 도서관을 동쪽으로 재배치시키고 조각 정원과 부속 화랑들이 이 지역들을 주화랑과 분리시키도록 설계하였다. 박물관의 핵심부분이었던 조각정원 역시 그 규모를 2배로 늘리도록 재구성하였으며 남쪽으로 넓은 야외 카페를 두고 동쪽으로는 테라스를 설계하였다. 기존의 박물관 타워내부에서는 화랑들로 통하도록 유선형의 통로가 마련되어 북서쪽에 위치할 새로운 화랑 건물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타니구치의 작품속에서 눈여겨볼 부분중의 하나는 대도시의 긴밀한 현실감을 화랑을 수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였다는 점이다. 밀집되고 수직화된 도시의 분위기를 작품에서 소화시킨 그의 독창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한 상층에 위치한 화랑에는 자연 채광이 들어오도록 설계하였으며, 기존의 조각 정원 역시 전형적인 도시풍의 플라자를 연상시키도록 재설계하였다. 건물 외관은 모더니즘이 전달하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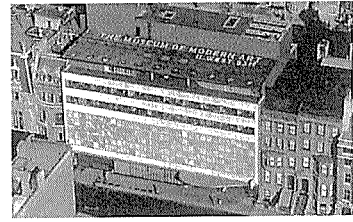
뉴욕 현대미술박물관 증개축 국제설계경쟁기에서 당선작으로 뽑힌 일본 건축가 요시오 타니구치의 설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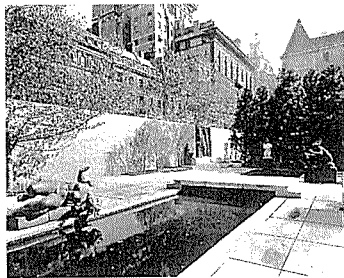
1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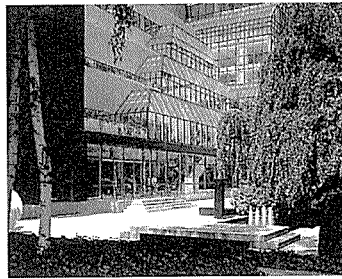
1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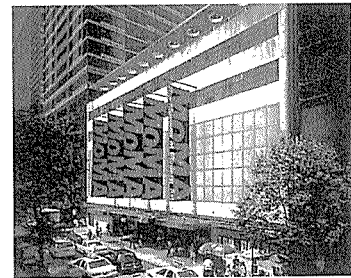
1939



1953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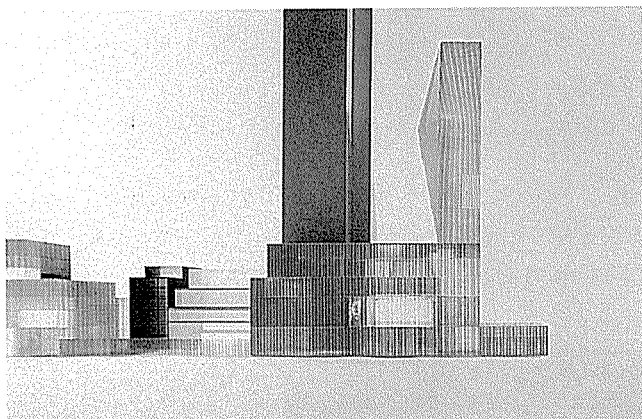
1997

사진으로 본 뉴욕 현대미술박물관의 역사

명하고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눈부실 정도로 밝고 청아하게 설계하였다.

이에 비해 추우미와 헤르조그 & 드 모이론의 작품은 타니구치가 취한 접근과는 몇가지 점에서 대비가 된다. 즉 추우미의 작품은 우선 추후에도 계속될 박물관의 확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설계를 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추우미의 작품은 제한된 도심지역에서 계속하여 그 모습을 거듭날 뉴욕 현대미술박물관의 장래를 예견하고 이에 걸맞은 설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던 그의 고심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먼저 그는 과감하게 건물들을 일직선 배치하여 간결한 외관을

갖추도록 하였다. 화랑을 선정부지의 양단에 위치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를 긴 조각정원에 의해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 조각정원은 더 큰 플라자의 일부분이며 화랑 큐레이터들의 사무실들은 53가를 따라서 일렬로 배치시켜 양단의 화랑들과 연결되도록 배치시켰다. 타니구치의 설계가 화랑을 수직 배치시켜 장차 박물관의 추가 확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비하여 추우미의 설계는 수평배치를 통하여 도심의 긴장감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 타니구치의 설계가 모더니즘 요소를 가미하면서 뉴욕 박물관의 역사성을 살리는데 더욱 주안점을 두었다면 추우미의 설계는 그 보다 조금더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였지만,



스위스의 건축가 야크 헤르조그 & 피에르 드 모이론의 설계경가응모안

추우미의 설계는 두가지 점에서 박물관의 외관표현에 있어서 성공적이지 못하다. 이중의 하나가 테라스 기둥 위로 위태롭게 돌출되어 나온 화랑의 캔틸레버 블록이며 또 하나는 건물의 각종 매캐니컬 시설들이 들어가는 3층 높이의 지붕위 창고이다. 이 창고식 건물의 양쪽에 거대한 빌보드판을 붙여서 뉴욕의 5가, 6가에서도 박물관이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혁신적이며 미래주의적인 발상이 보수적인 뉴욕박물관의 최종 심사위원회에게 엄청난 거부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비판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비해 헤르조그와 드 모이론의 설계는 큐레이터들을 위한 사무실 건물설계에 자신들의 창의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였다. 유리로 높게 치솟은 타워는 하늘을 찌를 듯이 남서쪽 코너에 자리잡게 만들었고, 면도날 같은 건물의 유리면이 전체적으로 우아한 모습을 자아낼 수 있도록 독특하게 설계되었다. 북쪽면이 5가쪽으로 뒤돌아지도록 하여 마치 수정의 깨진 조각처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설계에서 대부분의 건물 하단부분들은 전통적인 건물양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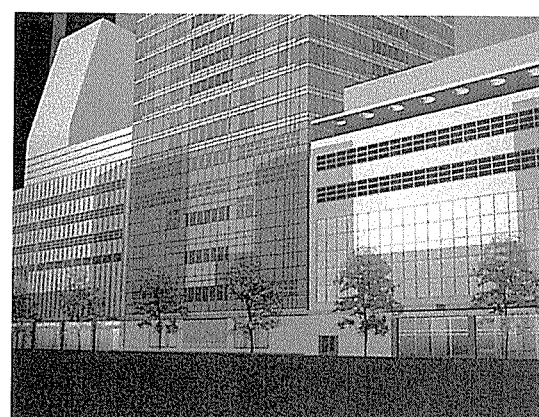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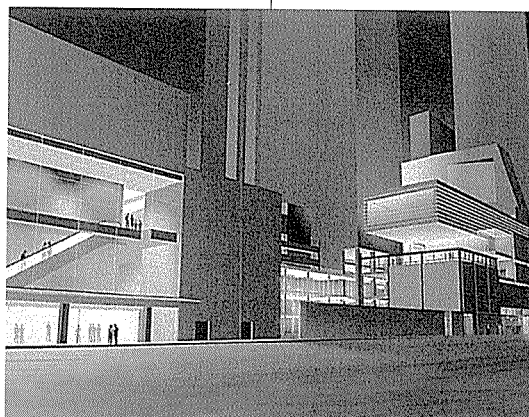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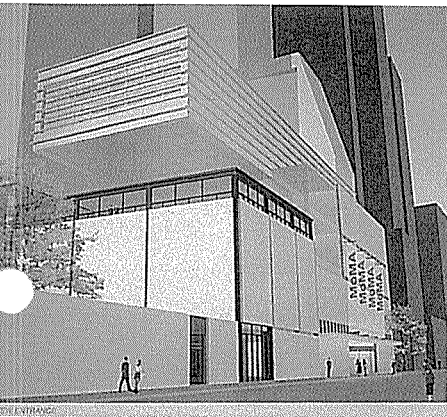
타니구치의 설계를 선택하므로 뉴욕 현대박물관은 전통 보수적인 모더니즘의 전통위에서 도시전체의 현대적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박물관의 확장 개축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비평가들은 미래지향적인 모더니즘의 실험무대로서 보다 더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고결한 과거의 역사성과 21세기적 미래지향적 모더니즘의 실험성이 함께 균형이 잡히는 설계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고심속에서도 뉴욕 현대미술관은 전통속에 더욱 깊은 발을 담고 현대적 모더니즘의 요소를 첨가식으로 가미한 타니구치의 작품을 선택하게 된 것이었다.

21세기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현대적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건축가들이 설계작품속에서 표출해내야 하는 모더니즘의 좌표는 역사성과 전통의 표현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실험적 어바니즘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가는 계속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으로 남고 있다. 건축에서의 모더니즘은 빠른 속도로 21세기에 다가서게 됨으로써 끊임없이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숙제를 풀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신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한 건축에 있어서 이의 창조적인 표현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지만 하고 실천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게 되자 미래지향성에 대한 구체적 신념과 이의 표현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회의론까지 대두하게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보다 더 미래지향적이고 과거의 전통에 대한 극단적인 단절을 추구하려는 입장도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설계 출품을 권유받은 10명의 건축가 중의 한 사람인 네덜란드의 램 쿨하스의 입장은 더욱 극렬하게 이를 대변하여 주고 있다. 쿨하스는 박물관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전통에서 우러나오는 고결함, 영적인 신비감이 더 이상 박물관의 이미지로 대표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조각 기둥과 같은 전통적 요소들은 지하에 들어서게 하고, 광장은 더욱 대중적인 거대한 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탈바꿈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전통적 요소와의 극단적인 단절이나 미래에 대한 실험적 도전의 방향 상실성을 작금의 모더니즘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기 보다 뉴욕 현대미술박물관은 역사성을 존중하고 전통적인 박물관의 역할을 모더니즘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하여 줄 수 있는 타니구치의 작품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실험적 접근에 대하여서는 조심성있게 다가서야 함을 보여주었다. 실험정신의 추구가 뉴욕 현대미술관과 같은 전통적 건물을 대상으로 한 대형 건축설계에 있어서 받아들여지는데 대한 한계를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이면서도 현대 모더니즘을 잘 정제하여 설계에 반영한 타니구치 자신이 일구어낸 해답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볼만하다.

* <http://www.1stent-const.com>, e-mail: park@1stent-const.com



미국 건축가 버나드 추우미의 설계경기응모단

「건축사」는
 회원 여러분의
 “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지는 회원 서로가 뉴스와 정보를 공유
 할수 있도록 회원의 작품과 관련된 소개는 물론
 회원 활동과 건축계 주변의 소식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준공작품	최근 준공된 프로젝트 (슬라이드 필름 5컷 내외(본협회 촬영가능), 설계개요, 설계소모 (200자 원고지 3~4매), 기본 도면(배치, 단면, 평면))
계획작품	최근 계획하거나 진행중인 프로젝트 또는 미실현 작품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1매, 주요도면 1~2매, 설계개요, 설계소모 (간략하게 200자원고지 2매 내외))
현상설계	최근 현상설계 경기에 응모하였거나 입상한 프로젝트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1매, 주요도면 1~2매, 설계개요, 설계소모 (간략하게 200자원고지 2매 내외))
회원동정 및 기타소식	건축여행, 세미나 참가, 회원 및 회원을 소개할 만한 신변잡기, 기타 건축계 주변의 활동사항이나 알리고 싶은 내용 등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1~2매(분량 제한 없음)

원고마감 : 매월 20일(수시 접수가능)
 보내실 곳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지 편집팀
 (우편번호 137-070)
 문 의 : 「건축사」지 편집담당
 전화 02-581-5711~4
 팩스 02-586-8823